

# 학교앞 생생...스쿨존 과속 전남 1년새 2배 이상 급증

### 나주 남평초 앞 '하루 10건' 3593건 광주는 지난해 2421건...24% 줄어

"내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앞 도로였어도 그렇게 내달렸을까?"

지난 한 해에만 나주시 남평초등학교 앞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속도 위반 차량이 무려 3593대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들은 유치원생 58명을 포함해 400여명이 다니는 이 학교 앞 도로에서 하루 평균 10건씩 과속했다.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언제, 어떻게 도로로 불쑥 튀어나올 줄 몰라 통학 안전을 위해 도로 표면을 붉게 칠하고 시속 30km로 속도를 제한, 단속카메라까지 설치했지만 운전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이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공개한 '스쿨존 과속단속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스쿨존 내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광주·전남 과속차량은 8843대(건)로 파악됐다.

광주는 지난 2016년 3173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2421건으로 24% 감소했다. 반면 전남은 지난 2016년 2892건이던 것이 지난해엔 642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광주지역 스쿨존 속도위반 과다적발 장소는 수완지구 장덕초 앞(하남로 방향)으로 연간 979대가 단속됐다. 다음으로 북구 우산동 무

등초 앞(전남대 방향)512건, 북구 효령동 광주북초등학교 앞(용전 방향) 264건, 서구 농성동 광천초교 앞(광천1교 방향)132건, 광산구 월곡동 영천초교 앞(하이마트 방향) 58건, 남구 주월동 장산초교 앞(한방병원 방향) 32건 순이다.

2016년에는 북구 우산동 무등초 앞 스쿨존이 92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북구 양산동 양지초 앞 4거리 238건, 서구 농성동 광천초 앞 149건, 광산구 월곡동 영천초 앞 65건, 남구 주월동 장산초 앞 39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스쿨존 과속 운전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다 적발지점은 나주시 남평초 앞(남평-능주)으로 지난 한 해에만 차량 3593대가 속도제한을 무시하고 내달렸다. 다음으로 목포시 대성초 대성초 앞(북향 방향) 1709건, 여수시 삼암동 삼암초 앞(묘도 방향) 893건으로 나타났다. 2016년 역시 나주 남평초 앞 스쿨존이 883건으로 가장 많이 단속됐고 다음으로 목포 대성초 대성초 앞 765건, 여수 삼암동 삼암초 644건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계도 및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1만6555개의 스쿨존 중 3.5%(577곳)에 불과한 무인단속카메라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3만 4415건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4만2682명이 부상당하고 190명의 어린이가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충장축제에 놀러 오세요” 4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인근에 조성된 제15회 광주 충장축제 ‘추억의 테마거리’에서 1970~1980년대 복장으로 차려입은 연기자들이 임택 광주 동구청장과 함께 축제를 홍보하고 있다. 충장축제는 5~9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금남로·충장로·예술의 거리 일원에서 펼쳐진다.

## 조선대 총학생회 공영형 사립대 전환 촉구 시민모임 등 연대단체와 기자회견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조선대 총학생회가 조선대 학교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조선대 총학생회와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모임' 등 연대단체는 4일 조선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대의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정부에 요구했다. 공영형 사립대는 대학 운영비 50%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대신 이사 정수의 50%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사립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으며 100대 국정 과제에도 포함돼 있다.

조선대는 대학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연계된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대 총학생회 등은 "일방적인 사립대 구조 조정은 무거운 등록금 부담과 학벌 차별이라는 사회적 불평등까지 감당하고 있는 지방사립대 학생들

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꼴이다"며 "졸세우기식 대학 평가를 중단하고, 공영형 사립대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대 학생들과 연대단체는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촉구하는 서명을 학생·학교 구성원 약 1500명으로부터 받았으며, 이를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후 조선대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한 학생모임을 결성하고 관련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선생님이 오죽하면 학생 후드티 잘랐겠느냐”

### 광주지검 재물손괴 피고소 교사 시민위 결정따라 기소유예 처분

담임교사가 평소 학생들을 심하게 괴롭히고, 수차례 경고에도 교복을 입지 않은 제자의 사복(후드티)을 잘랐다면 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돼야 할까.

4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광주시 모 사립 중학교 2학년생인 A(15)군은 최근 자신의 담임 교사 B(45)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B교사가 지난 4월 자신에게 욕을 하고 정강이를 4~5회 발로 찼는가 하면, 지난 5월에는 교복 대신 사복을 입고 등교했다며 커터칼로 옷을(15만원 상당의 후드티)을 잘랐다고 주장했다. 내용은 기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담당 검사는 고민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묻기로 했다.

최근 회의를 연 광주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해당 교사의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나 폭행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위원 13명 중 12명이 기소유예 의견을 냈다. 검찰도 시민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B교사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에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정황 등을 참작해 검사가 공소(公訴)를 제기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시민위원들은 B교사가 A군에게 수차례 교복을 입고 등교할 것을 얘기했는데도 따르지 않은 점과 그동안 3차례나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된 A군이 타학교로 강제전학 조치된 이후 B교사를 고소한 점 등을 들어 보복성 고소의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 130여명이 "선생님이 오죽하면 후드티를 잘랐겠느냐. 선생님은 잘못이 없다"는 내용 등이 담긴 탄원서를 낸 점도 고려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시민위원 절대 다수가 제자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스승에게 죄를 묻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당시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검찰 시민위원회는 검사가 심의·요청한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 등을 심의하는 국민형사사법절차 참여 제도로, 위원회의 결정은 권고적 효력만 있고 구속력은 없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강풍 조심하세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광주	흐리고비	17/22	보성	흐리고비	16/22
목포	흐리고비	18/22	순천	흐리고비	18/22
여수	흐리고비	18/22	영광	흐리고비	16/22
나주	흐리고비	16/22	진도	흐리고비	18/22
완도	흐리고비	18/22	전주	흐리고비	17/22
구례	흐리고비	16/22	군산	흐리고비	17/21
강진	흐리고비	17/22	남원	흐리고비	16/22
해남	흐리고비	17/22	흑산도	흐리고비	18/21
장성	흐리고비	16/23			

◇바다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동~동 0.5~2.0	북동~동 1.5~3.0	
	먼바다	북동~동 2.0~4.0	북동~동 2.0~6.0	
남해서부	앞바다	북동~동 2.0~3.0	북동~동 2.0~4.0	
	먼바다(동)	북동~동 2.0~4.0	북동~동 3.0~6.0	
	먼바다(서)	북동~동 3.0~4.0	북동~동 3.0~6.0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03 16:07	10:29 23:24
여수	간조	만조
	11:55 --:--	06:02 18:34

◇주간날씨

6(토)	7(일)	8(월)	9(화)	10(수)	11(목)	12(금)
☁	☁	☀	☀	☀	☀	☀
20/24	17/22	12/22	12/22	11/21	10/20	11/21

해돋이 06:30    달뜨기 01:44  
해질 18:12    달지기 15:55

서울 춘천 강릉  
인천 청주 목포  
대전 전주 대구  
광주 부산  
제주

◇생활지수

- 식중독: 관심
- 자외선: 보통
- 미세먼지: 보통

www.kimex.or.kr

# 2018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 KOREA INTEGRATIVE MEDICINE FAIR 2018

2018. 10. 8.(월) ▶ 14.(일)

장흥 통합의료한방병원 ·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

- 일링프로그램**  
힐링뮤직 페스티벌, 예술로 통하는 건강테라피, 족욕체험
- 건강100세관**  
전라남도 시·군 보건소 프로그램, 100세 건강교실과 체조
- 의료산업관·특산물 판매장**  
의료기기,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판매
- 통합의학 대학관**  
대학병원 통합의학 전문병원 등 통합의료, 대체의학 대학 치유프로그램
- 가족·어린이 프로그램**  
통합의학 건강 쿠키 클래스, 두뇌 건강 가족 퍼즐 게임
- 학생·단체관람 프로그램**  
청소년 건강,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건강한 삶의 길을 보여드립니다

◆ 주 회: 전라남도 / 정홍균    ◆ 주 관: 대한민국통합의학박람회추진위원회    ◆ 후 원: 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처